

# 『서궐영건도감의궤』의 목재류 어휘 분석 연구

오 창 명

(전남대학교 학술연구교수)

손 희 하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천 득 염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주제어 : 서궐영건도감의궤, 차자표기, 건축 어휘, 목재류 차자표기

## 1. 序言: 『西闕營建都監儀軌』(1831)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西闕營建都監儀軌』(1831)에 쓰인 건축 어휘의 차자표기 중 목재류 어휘를 중심으로, 그 차자표기의 독법을 밝히고 어떤 뜻으로 쓰이는 어휘인가를 연구한 것이다.

각종 의궤류에서 확인할 수 있는 차자표기의 건축 어휘는 그 資材에 따라 목재류 어휘, 석재류 어휘, 칠재류 어휘, 기타 어휘 등으로 나눌 수도 있고, 부재(部材)에 따라 기단 및 초석류 어휘, 기둥류 어휘, 공포류 어휘, 가구류 어휘, 지붕가구류 어휘, 창호류 어휘, 기타 어휘 등으로 나눌 수도 있다. 또한 건축에 쓰이는 도구 어휘를 공장도구류 어휘 또는 도구류 어휘(또는 연장류 어휘), 용기 어휘를 용기류 어휘라고도 하며, 부재 어휘를 부재류 어휘라고도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잠정적으로 건축 어휘를 자재에 따라 목재류 어휘, 석재류 어휘, 칠재류 어휘, 기타 어휘 등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연구·고찰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西闕營建都監儀軌』(1831)의 목재류 차자표기 어

휘에 한하여 발표하고자 한다. 『西闕營建都監儀軌』를 중심으로 목재류 차자표기 어휘를 해독하는 데 중점을 두었지만, 의궤의 특성상 동일 어휘에 대하여 여러 개의 異表記가 나타나기 때문에 17세기부터 20세기까지 의궤에 나타나는 이표기들도 개개 어휘를 고찰하는 자리에서 같이 언급하도록 한다.

西闕은 경희궁의 속칭으로, 서쪽에 있는 궁궐이라는 데서 붙인 말이다. 이 서궐에 견주어 창덕궁·창경궁을 東闕이라 하고, 경복궁을 北闕이라 하였다. 경희궁은 지금 서울 특별시 종로구 신문로에 있다. 본래 塞門宮, 慶寧宮, 西別宮, 慶德宮 등으로 불렸다. 처음 창건 때는 유사시에 왕이 본궁을 떠나 避寓하는 離宮으로 지어졌으나, 궁의 규모가 크고 여러 임금이 이 궁에서 정사를 보았기 때문에 동궐인 창덕궁에 대하여 서궐이라 불리고 중요시되었다. 이 궁이 창건된 것은 1617년(광해군 9)이다. 당시 광해군은 창덕궁을 凶宮이라고 꺼려 길지에 새 궁을 세우고자 하여 인왕산 아래에 仁慶宮을 창건하였다. 그런데 다시 定遠君의 옛 집에 왕기가 서렸다는 술사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 궁을 세우고 경덕궁이라고 하였다.

경덕궁은 1617년에 짓기 시작하여 1620년에 공사를 끝마쳤다. 1693년(숙종 19)에 1차 수리를 하였다. 1760년(영조 36)에 경덕궁이던 궁명을 경희궁으로 고쳤다. 1829년(순조 29) 10월 3일에는 큰불이 나 궁내 주요 전각 절반가량이 타 버렸다. 그래서 이듬해인 1830년에 西闕營建都監을 설치하여 소실된 건물을 재건하였다. 이 때 경희궁인 서궐을 영건한 내용을 정리한 책이 『西闕營建都監儀軌』이다. 이 책에는 화재의 발생부터 영건에 필요한 물자의 준비, 예산 마련, 소요 물품의 지정과 운반, 공사에 소요된 물품 명세, 동원된 공장(工匠)의 명단 등 영건 관련 내용이 자세하게 담겨 있다.

『西闕營建都監儀軌』는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도서번호 규14532). 이 책의 영인본은 2001년 서울대학교 규장각에서 규장각자료총서의 의궤편 중 하나로 영인 출간되었다. 그 후 2003년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에서 『國譯 西闕營建都監儀軌』를 냈는데, 이 책 속에 권점이 찍힌 영인본을 수록하였다.

營建 儀軌類는 조선 시대 건축 연구의 1차 사료로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이들 의궤류에는 고유어 건축 용어를 차자표기로 기록해 놓았는데, 이것을 올바르게 해독하는 것이 조선 중기, 또는 조선 후기에 쓰인 고유어 건축 용어를 이해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 2. 營建都監과 營建廳의 儀軌

조선시대에 궁궐 또는 왕실 건축과 관련한 큰 건축 공사가 있을 때는 대부분 營建都監 또는 營建廳 등을 임시로 설치하여 공사를 관장하게 하였다.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營建都監은 조선 선조 때(선조 39년, 1606)부터 보이고, 營建廳은 이보다 조금 뒤인 광해군 때(광해군 1년, 1609)부터 보인다. 그러나 營建이라는 말은 태조 때부터 쓰였다. 연구에

따르면, 영건도감은 조선시대 전시기에 수시로 설치되었기 때문에, 그 설치시기를 일일이 지적하기가 어렵다.

궁궐 건축은 건축 공사 내용과 성격에 따라 營建·重建·增建·改修·重修·城役·造成·修築·修理·修改·增修·改建·繕修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건축 공사의 규모에 따라, 클 때에는 영건도감을 설치하고, 작을 때에는 營建廳·重建廳 등의 기구를 도감 대신 설치하였다. 때에 따라서는 주무관청인 繕工監이나 호조·공조 등에서 직접 맡아서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한다.

공사가 완료되면 일정 장소에 의궤도감을 설치하고 여기에서 謄錄과 여러 문서들을 정리, 편집하여 의궤를 만들었다. 이 의궤는 御覽用 1부를 비롯하여 여러 부를 작성하여 史庫 및 관련 관청에 나누어 보관하였다. 조선 시대에는 태조 때부터 京城修築都監·궁궐조성도감·문묘조성도감 등 국가적인 공사가 있을 때마다 여러 도감이 설치되었으나, 여기에서 의궤를 편찬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영건이나 건축 관련 의궤 중 현재 남아 전하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633년(인조 11)의 『昌慶宮修理都監儀軌』에서부터 『慶運宮重建都監儀軌』(1906년)까지 40여 종이 넘는다. 더욱이 건축 관련 어휘가 나오는 『山陵都監儀軌』와 『樂器造成廳儀軌』 등을 합치면 50여 종이 넘는다.

## 3. 木材類 어휘 표기와 해독

木材는 건축이나 가구 따위에 쓰는 나무로 된 재료를 일컫는데, 목재류 어휘에는 건축에 쓰는 나무로 된 재료를 모두 포함하기로 한다.

### 3-1. 기둥

‘기둥’은 근대국어에서 ‘기둥’으로 실현되었는데, ‘柱[기둥]’로 표기하였다.

柱[기둥], 高柱[노퐁기둥 > 높은기둥], 平柱[평기둥], 柱頭[기둥머리], 童子柱[동즈기둥]

高柱十二箇 平柱二十箇……童子柱十箇  
〔修粧木頭折取用〕……大柱頭四十二箇〔修粧木頭折取用〕……小柱頭三十二箇〔修粧木頭折取用〕……柱四箇〔虛家所入〕『西闕營建都監儀軌』(辛卯三月日, 實入)

‘柱’는 ‘간[간 爲柱(훈해, 합자)]’ > 기둥{楹 기둥 영, 柱 기둥 듀(훈몽-초, 중:4)} > 기둥(柱 기둥 듀(신합, 상:23))’의 뜻으로 쓰인 것이지만, 대개 훈독자로 인식하지 않고 음독자로 인식하거나 한자어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중세국어와 근대국어에서 확인되는 ‘구리길(월석, 21:80), 길불휘/柱根(법화, 2:103), 구리기둥/銅柱(능엄, 8:80), 기둥쇠/鐵柱(한칭, 5:23)와 ‘短柱’를 ‘동즈기둥(동즈기둥/短柱(역해, 상:17))’이라 한 것, 그리고 현대국어에서 ‘方柱’를 ‘모기둥’, ‘圓柱’를 ‘둥근기둥’과 ‘두리기둥’, ‘退柱’를 ‘뒤틀기둥’이라 하는 것 등을 고려하면 柱는 ‘기둥 > 기둥’의 훈독자 표기로 쓰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高柱’는 ‘노퐁기둥 > 높은기둥’, ‘平柱’는 ‘평기둥 > 평기둥’, ‘柱頭’는 ‘기둥머리 > 기둥머리’, ‘童子柱’는 ‘동즈기둥(短柱 동즈기둥(역해, 상:17)) > 동자기둥’의 차자표기라 할 수 있다. 이들은 현대국어에서 한자어와 고유어를 모두 쓰고 있다. 곧 ‘高柱’는 ‘고주’와 ‘높은기둥’으로, ‘平柱’는 ‘평주’와 ‘평기둥’으로,

‘柱頭’는 ‘주두’와 ‘기둥머리’로, ‘童子柱’는 ‘동자주’와 ‘동자기둥’으로 쓰고 있다.

### 3-2. 보

‘보’는 근대국어에서도 ‘보’로 실현되었는데, ‘樑’과 ‘樑’로 표기하였다.

樑[보·들보], 大樑[대들보], 退樑[뒤틀보], 宗樑[종보], 樑[보], 合粧樑[맞장보], 衝樑[충보]

大樑三箇 退樑十六箇 宗樑五間……樑三十二箇〔虛家所入〕『西闕營建都監儀軌』(庚寅二月日, 後, 隆福殿十五間材木)

大樑二箇 合粧樑四箇 宗樑六箇 退樑十八箇『西闕營建都監儀軌』(庚寅二月日, 後, 會祥殿十八間材木)

衝樑四箇『西闕營建都監儀軌』(辛卯三月日, 實入, 興政堂十二間材木鐵物)

‘樑’은 ‘보’ 또는 ‘들보(過樑 들보(동해, 상:34), 樑 들보(왜해, 상:32), 梁 들보 楸(광보, 궁실부))’의 차자표기로 쓰인 것이다. 곧 ‘樑’은 훈독자로 쓰인 것인데 현대국어에서는 주로 음독자로 읽어 ‘양·량’이라 하는 경우가 많다. ‘樑’은 ‘梁’으로도 표기하였는데, 이것도 훈독자 표기이다. 한편 ‘보’ 또는 ‘들보’는 ‘楸[보·들보]’ 또는 ‘樑[보·들보]’로 표기한 경우도 있는데, ‘楸’은 훈독자로, ‘樑’은 음독자로 쓰인 것이다. 곧 ‘樑·梁’이 ‘樑’(樑보, 樑也 들보 見戶曹定例(신자전, 조선속자보, 13획)) 또는 ‘楸’(들보 북)으로 표기하였다. 특히 이 의궤에서 확인되는 ‘樑道里’는 ‘뫼도리’의 차자표기이다. ‘보’는 칸과 칸 사이의 두 기둥을 건너질러서 도리와는 人자꼴, 마룻대와는 +자꼴을 이루는 나무를 이른다.

‘大樑’은 ‘대들보’, ‘退樑’는 ‘뒤틀보’, ‘宗樑’은 ‘종보 > 종보’, ‘合粧樑’는 ‘맞장보’의 차자표기이다. ‘宗樑’은 ‘宗樑’로도 표기하여 ‘뫼룻보 > 마룻보’의 차자표기로 보인다. 그러나 17세기 의궤에서 ‘從楸[종보]’과 ‘從樑[종보]’로

1) 이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중세국어 및 근대국어 자료를 인용하였는데, 왼쪽의 본 이름을 오른쪽과 같이 준 이름으로 썼음을 밝힌다.

『訓民正音』(解例本, 1446)→<훈해>, 『月印釋譜』(초간본, 1458)→<월석>, 『楞嚴經諺解』(1461, 1495)→<능엄>, 『法華經諺解』(1463, 1495)→<법화>, 『訓蒙字會』(초간본, 1527)→<훈몽-초>, 『新增類合』(1576, 1578)→<신합>, 『千字文』(광주판, 1575)→<천자-광>, 『千字文』(석봉판, 1583)→<천자-석>, 『訓蒙字會』(중간본, 1613)→<훈몽-중>, 『東國新續三綱行實圖』(1617)→<동신>, 『譯語類解』(1690)→<역해>, 『靑丘永言』(원본)→<청언-원>, 『同文類解』(1748)→<동해>, 『倭語類解』(18세기)→<왜해>, 『漢清文鑑』(18세기)→<한청> 『廣才物譜』(조선 후기)→<광보>

표기한 것으로 보아, 원래는 ‘중보’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衝樑’은 ‘중보’로 읽어두는데, 현대 국어사전이나 건축사전에는 그냥 ‘중량’이라 하여, 한 끝은 기둥머리에 짜이고 다른 끝은 대들보의 중간에 걸친 보라고 하였다.

‘大樑·大梁[대들보]’의 경우, ‘大楸[대들보]’(『孝宗寧陵山陵都監儀軌(1659)』), ‘大樑[대들보]’(『垂恩廟營建廳儀軌(1764)』)로, ‘退樑[뒷보]’은 ‘退楸[뒷보]’(『孝宗寧陵山陵都監儀軌(1659)』)·‘退樑[뒷보]’(『文禧廟營建廳瞻錄(1789)』)로, ‘宗樑[중보]’은 ‘從楸[중보]’(『孝宗寧陵山陵都監儀軌(1659)』), ‘從樑[중보]’(『垂恩廟營建廳儀軌(1764)』), 『顯思宮別廟營建都監儀軌(1824)』(實入)에 ‘宗樑[중보]’등으로 표기하였다. ‘合粧樑[맞장보]’는 다른 위례에서 ‘合掌樑[맞장보]’(『顯思宮別廟營建都監儀軌(1824)』) 또는 ‘合掌楸[맞장보]’(『孝宗寧陵山陵都監儀軌(1659)』)·‘合杖樑[맞장보]’(『南殿增建都監儀軌(1752)』)·‘合長楸[맞장보]’(『文禧廟營建廳瞻錄(1789)』)등으로도 표기하였으며, 『顯思宮別廟營建都監儀軌(1824)』(實入)에서는 ‘樑·樑[보·들보], 大樑[대들보], 退樑[뒷보], 宗樑[중보], 合掌樑[맞장보]’등으로 표기하였다.

### 3-3. 도리

‘도리’는 근대국어에서 ‘도리’로 실현되었는데, ‘道里’로 표기하였다.

道里[도리], 圓道里[둥근도리], 柱道里[기둥도리], 樑道里[붓도리]

圓道里四十八箇……道里四箇[虛家所入]

『西闕營建都監儀軌』(庚寅二月日, 後, 隆福殿十五間材木)

柱道里次質木五十箇 『西闕營建都監儀軌』(庚寅二月日, 後, 南呂門……入材木鐵物)

樑道里十六箇 『西闕營建都監儀軌』(庚寅二月日, 後, 延明門……材木)

‘道里’는 ‘도리{桁 도리 횡(훈몽-초, 중5)}’

건축역사연구 제16권 1호 통권50호 2007년 2월

의 차자표기이다. 도리는 기둥과 기둥 위에서 서까래를 얹으려고 돌려 얹히는 나무를 이른다. ‘圓道里’는 ‘둥근도리’, ‘柱道里’는 ‘기둥도리 > 기둥도리’, ‘樑道里’는 ‘붓도리(보에 얹는 도리)’의 차자표기이다. ‘圓道里’는 『孝宗寧陵山陵都監儀軌(1659)』에서 ‘仇兀道里[구올도리·굴도리]’로 표기하였다. ‘납도리’는 ‘申道里’로, ‘평도리’는 ‘平道里’로 표기하였다.

### 3-4. 대공

‘대공’은 근대국어에서 ‘더공’으로 실현되었는데, ‘臺工’으로 표기하였다.

臺工二箇[修粧木頭折取用] 臺工所湯一箇[虛家所入] 『西闕營建都監儀軌』(庚寅二月日, 後, 延明門……材木)

‘臺工’은 ‘더공{稅 더공 절(왜해, 상:32) 稅 보더공 斗拱(광보, 궁실부)} > 대공’의 차자표기이다. 『孝宗寧陵山陵都監儀軌』(1659)과 『垂恩廟營建廳儀軌』(1764)에는 ‘大工[더공]’으로 표기하였다. 『文禧廟營建廳瞻錄』(1789)에서는 ‘臺工’과 ‘大工’을 확인할 수 있다. ‘대공’은 들보 위에 세워 마룻보를 받치는 짧은 기둥을 이른다. ‘所湯’은 ‘바탕’, ‘臺工所湯’은 ‘더공바탕 > 대공바탕’의 차자표기이다. ‘바탕’은 물체의 뼈대가 되는 부분을 이른다.

### 3-5. 창방

‘창방’은 근대국어에서 ‘창방’으로 실현된 것으로 보이는데, ‘昌防’으로 표기하였다.

昌防四十八箇 『西闕營建都監儀軌』(辛卯三月日, 實入, 隆福殿十五間材木)

昌防은 ‘창방 > 창방’의 차자표기이다. ‘창방’은 대청 위의 장여 밑에 다는 넓직한 도리를 이른다. 다른 위례에서는 ‘昌防’ 또는 ‘昌方’(『文禧廟營建廳瞻錄(1789)』)으로 표기하였다. 건축용어사전과 국어사전 등에서는 ‘昌枋’만 확인할 수 있다.

### 3-6. 장여

‘장여’는 근대국어에서 ‘당혀’ > 장혀’로 실현되었는데, ‘長舌’로 표기하였다.

長舌四十八箇 『西闕營建都監儀軌』(辛卯三月日, 實入, 隆福殿十五間材木)

‘長舌’은 ‘장혀’의 차자표기로, 현대국어의 ‘장여’에 대응한다. ‘장혀’는 근대국어에서 ‘당혀(托樑 당혀도리(역해, 상17)), 당혀(桁條 당혀(역해, 하17))’로 실현되다가 ‘장혀(托樑 장혀도리(한칭, 9:69))’로 실현되었다. ‘長舌[장혀]’은 현대국어의 ‘장혀·장여’에 대응하는 것으로, 도리를 받치고 있는 길고 모진 나무를 이른다. 현대국어의 ‘장여’는 ‘장연(長椽)’을 뜻하는 ‘장여’와 음상이 같으나, 표기는 ‘長舌[장혀]’과 ‘長椽[장연]’으로 다르다.

### 3-7. 익공

‘익공’은 근대국어에서도 ‘익공’으로 실현되었는데, ‘翼工’으로 표기하였다.

翼工七十八箇 『西闕營建都監儀軌』(辛卯三月日, 實入, 隆福殿十五間材木)

‘翼工’은 ‘익공’의 차자표기로, 첨차 위에 얹혀 있는, 촛가지를 짧게 아로새긴 나무를 이른다. 현대 국어사전이나 건축사전에서는 한자어로 ‘翼工(익공)’을 인정하고 있는데, 『孝宗寧陵山陵都監儀軌』(1659)에서는 ‘初立工[초립공], 二立工[이립공], 毛里工[모립공]’으로 표기하고, 『懿昭廟營建廳儀軌』(1752)에서는 ‘初立工[초립공], 無立工[무립공]’으로 표기하고, 『文禧廟營建廳瞻錄』(1789)에서는 ‘立工[입공], 初立工[초입공], 無立工[무입공], 單立工[단입공]’ 등으로 표기하였다. 이로 보아 원래 ‘입공’이라 하던 것이 ‘익공’으로 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익공’의 한자어를 ‘翼工’이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곧 ‘翼工’은 ‘익공’의 차자표기 중 하나일 뿐이지, ‘익공’에 대응하는 한자 표기는 아니라는 것이다. 『華城城役儀軌』(1801)에서 ‘翼工’이 보이므로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반에 ‘翼

工’으로 쓰기시작 한 것으로 보인다.

### 3-8. 보아지

‘보아지’는 근대국어에서도 ‘보아지’로 실현되었는데, ‘樑阿支’로 표기하였다.

樑阿支十六箇〔修粧木頭折取用〕 『西闕營建都監儀軌』(辛卯三月日, 實入, 隆福殿十五間材木)

‘樑阿支’는 ‘보아지’의 차자표기로, 들보를 받치기 위하여 기둥머리에 가로 낀, 꽃을 새긴 널조각을 이른다. 『文禧廟營建廳瞻錄』(1789)에서는 ‘樑阿只’로 표기하고, 『垂恩廟營建廳儀軌』(1764)에서는 ‘浮阿只·浮阿[부아지], 樑阿只[보아지]’로 표기하고, 『昌慶宮都修理監儀軌』(1633)에서는 ‘甫兒只·甫阿只[보아지]’로 표기하고, 『懿昭廟營建廳儀軌』(1752)에서는 ‘保兒之[보아지], 浮兒只[부아지]’로 표기하고, 『顯恩宮別廟營建都監儀軌』(1824)에서는 ‘甫兒之[보아지]’로 표기하고, 『中和殿營建都監儀軌』(1907)와 『慶運宮重建都監儀軌』(1907)에서는 ‘甫兒支[보아지]’로 표기하였다. 『華城城役儀軌』(1801)에서는 ‘樑奉[보받이]’으로 표기하였는데, 이것은 ‘보받이’를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 표기는 ‘보받이’가 변하여 ‘보아지’가 된 단서를 제공하는 표기로 보인다.

### 3-9. 행공

‘행공’은 근대국어에서 ‘형공’으로 실현되었는데, ‘行工’으로 표기하였다.

行工四十二箇〔修粧木頭折取用〕 『西闕營建都監儀軌』(辛卯三月日, 實入, 隆福殿十五間材木)

‘行工’은 ‘형공 > 행공(行 널 형(훈몽 하 11), (석천))’의 차자표기로, 현대 국어의 ‘행공(行拱)’에 대응한다. 주심포에서, 외목도리와 장여를 받친 첨차(檐遮)를 이른다. 『우리말큰사전』에는 ‘행공’이 등재되었으나, 『표

『增補大邑縣志』에는 등재되지 않았다. 『孝宗寧陵山陵都監儀軌』(1659)과 『垂恩廟營建廳儀軌』(1764)에도 ‘行宮[힝궁]’으로 표기하였는데, 특이하게 『宗廟改修都監儀軌』(1725)에는 ‘行宮[힝궁]’으로 표기하였다.

3-10. 화반

‘화반’은 ‘花盤’으로 표기하였다.

花斑九十八箇〔修粧木頭折取用〕『西闕營建都監儀軌』(庚寅二月日, 後, 隆福殿十五間材木)

‘花斑’은 ‘화반’의 차자표기로, 초방 위 장어를 받치기 위하여 화분·연꽃·사자 따위를 그려 끼우는 널조각을 이른다. 『孝宗寧陵山陵都監儀軌』(1659)와 『昌慶宮營建都監儀軌』(1834), 『中和殿營建都監儀軌』(1907), 『慶運宮重建都監儀軌』(1907)등에는 ‘花盤[화반], 長花盤[장화반>장화반]’ 등으로 표기하였는데, 이 표기가 오늘날 건축사전과 국어사전에 그대로 반영되어 ‘花盤(화반)’으로 쓰고 있다.

3-11. 추녀

‘추녀’는 근대국어에서 ‘츄혀’로 실현되었는데, ‘春舌’로 표기하였다.

春舌四箇 春舌宗心木四箇『西闕營建都監儀軌』(辛卯三月日, 實入, 隆福殿十五間材木)

‘春舌’은 ‘츄혀{飛簷 츄혀(역보, 12) 木昂, 斜棟, 四阿 츄혀(물보, 제택)}’의 차자표기로, 현대국어의 ‘추녀’에 대응한다. 春舌宗心木은 ‘츄혀중심목’의 차자표기로, 현대국어의 ‘추녀 중심목’에 대응한다. 『文禧廟營建廳曆錄』(1789)에서는 ‘春舌抹樓[츄혀말루], 春舌抹樓心[츄혀말루심], 春舌靛防[츄혀딴방]’도 확인할 수 있다. 『孝宗寧陵山陵都監儀軌』(1659)에서는 ‘衝椽(츄연)’으로 표기하였는데, 이는 고유어 ‘츄혀’에 대응하는 한자어이다.

3-12. 소루

‘소루’는 근대국어에서 ‘소로’ 또 ‘쇼루’로 실현된 것으로 보이는데, ‘小累’로 표기하였다.

小累二百八十二箇〔修粧木頭折取用〕『西闕營建都監儀軌』(辛卯三月日, 實入, 隆福殿十五間材木)

小累는 ‘쇼루(小 자굴 쇼(유합, 하47)) > 소루’의 차자표기이다. 현대 국어의 ‘소루(小累)·소로(小櫨)·접시받침’에 대응하는 말로, 두공·첨차·한대·제공·장여·화반 따위를 받치는 네모진 나무를 이른다. 『孝宗寧陵山陵都監儀軌』(1659)에서는 ‘小路[쇼로]’로, 『垂恩廟營建廳儀軌』(1764)에서는 ‘小露[쇼로]’로 표기하였다. 『慶運宮重建都監儀軌』(1907)에서는 ‘小累[쇼루]’와 ‘大接小累[대접쇼루]’를, 『中和殿營建都監儀軌』(1907)에서는 ‘四芻小累[네갈쇼루], 兩芻小累[양갈쇼루], 件小累[별쇼루], 八隅小累[팔모쇼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원래 ‘소로[小路·小露]’로 실현되던 것이 19세기 후반에 ‘쇼루[小累]’로 실현된 것으로 보인다.

3-13. 사래

‘사래’는 ‘蛇羅’로 표기하였다.

蛇羅四箇『西闕營建都監儀軌』(辛卯三月日, 實入, 隆福殿十五間材木)

‘蛇羅’는 ‘사라’ 또는 ‘사래’의 차자표기로, 현대국어의 ‘사래’에 대응한다. ‘羅’는 근대국어의 차자표기에서 ‘래’ 또는 ‘레’의 표기로도 쓰였으므로 ‘蛇羅’는 ‘사래’의 차자표기라 할 수 있다. ‘사래’는 추녀 끝에 잇대어 댄 네모난 서까래를 이른다. 『孝宗寧陵山陵都監儀軌』(1659)에서는 ‘舍羅[사라]’로, 『垂恩廟營建廳儀軌』(1764)에서는 ‘斜羅[사라]’로, 『華城役儀軌』(1801)에서는 ‘蛇羅[사라]’로, 『中和殿營建都監儀軌』(1907)과 『慶運宮重建都監儀軌』(1907)에서는 ‘沙乃[사너 > 사래]’로 표기하였다.

3-14. 산방

‘산방’은 ‘散防’으로 표기하였다.

散防八箇 『西闕營建都監儀軌』(辛卯三月日, 實入, 隆福殿十五間材木)

‘散防’은 ‘산방’의 차자표기로, 추녀 곁의 도리 위에 서까래를 걸기 위하여 세모꼴로 깎아서 붙이는 나뭇조각을 이른다. 『垂恩廟營建廳儀軌』(1764)에서는 ‘散方[산방]’으로, 『孝宗寧陵山陵都監儀軌』(1659)과 『中和殿營建都監儀軌』(1907) 등에서는 ‘散防[산방]’으로 표기하였다. 『文禧廟營建廳瞻錄』(1789)에서는 ‘散防·散方’으로 표기하였다. 현대 국어사전류에서는 ‘산방’의 한자로 ‘散枋’을 쓰고 있으나, 이는 차자표기 중 하나일 뿐이다. 오늘날은 같은 뜻으로 ‘갈모산방(—帽散枋)’도 쓰고 있다.

3-15. 널

‘널’은 ‘板’으로 표기하였다.

板[널], 婦椽盖板[부연듬게널], 扇子盖板[선자듬게널], 風板[브롬널], 散子板[산즈널], 廳板[청널], 遠音廳板[머름청널], 斑子廳板[반즈청널], 龍脂板[용지널], 門板[문널], 假退長廳板[헛퇴장청널], 廉隅板[염모널], 假退廉隅板[헛퇴염모널]

婦椽盖板二百十二立……扇子盖板九十二立……風板三十二立……散子板四立〔邊板取用〕……廳板二百三十立〔頭折木取用〕……遠音廳板一百十六立……斑子廳板七十二立 『西闕營建都監儀軌』(辛卯三月日, 實入, 隆福殿十五間材木)

龍脂板四立 『西闕營建都監儀軌』(辛卯三月日, 實入, 延慶門材木鐵物)

龍脂板盖板平交臺朴工〔邊板取用〕門板次統木三箇 草龍脂板次質木六箇 『西闕營建都監儀軌』(庚寅二月日, 後, 南呂門……入材木鐵物)

假退長廳板四立〔邊板取用〕假退廉隅板分閣十隻 『西闕營建都監儀軌』(庚寅二月日, 後, 星鳥門……所入)

‘板’은 ‘널{널 爲板(훈해, 25)}’의 차자표기이다. 婦椽盖板은 ‘부연듬게널’ 또는 ‘부연듬게널’, 扇子盖板은 ‘선자듬게널’의 표기로 보인다. ‘盖板·盖板’은 ‘듬게널(蓋 개 개, 두플 개(유합, 상19), 蓋 더플 개(친자-주))’듬개널’ 정도를 표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개판’이라 하고 있다.

‘風板’은 ‘브롬널’, ‘散子板’은 ‘산즈널’, ‘廳板’은 ‘청판’ 또는 ‘청널’, ‘遠音廳板’은 ‘머름청판’ 또는 ‘머름청널’, ‘斑子廳板’은 ‘반즈청널’의 차자표기이다. 현대 국어사전에는 ‘청판(廳板)’과 ‘청널(廳-)’은 ‘마루청·마룻장·마룻널·마루판’이라 하고 ‘마룻바닥에 깔아 놓은 날날의 널조각’이라 하였다. 그러나 ‘遠音廳板[머름청널]’으로도 쓰이므로, ‘청널’이 곧 ‘마루청·마룻장·마룻널·마루판’이라 하는 것은 잘못이다. ‘假退’는 ‘가퇴’로 읽고 있으나, ‘헛퇴’의 차자표기로 보인다. ‘假’를 ‘딛-’의 훈가자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靛[딛]’과는 다른 것으로 보인다. ‘廳板’도 ‘청판’ 또는 ‘청널’의 차자표기로 보인다.

‘龍脂板’은 ‘용지널’의 차자표기로, 아랫중앙 옆에 대는 널쪽(벽이 무너지지 아니하게 한다.)을 이른다. 현대 국어사전에는 ‘용지판(—板)’으로 등재하였다.

‘廉隅板’은 ‘염모널’의 차자표기로, 현대국어 ‘여모’ 또는 ‘여모널’에 대응하는 말이다. ‘여모’는 서까래나 판장 마루 등의 끝 면을 막아 대는 나무를 이른다. 『孝宗寧陵山陵都監儀軌』(1659)에서는 ‘斂衣板[여미널]’로, 『垂恩廟營建廳儀軌』(1764)에는 ‘長斂隅[장여모/긴여모], 短斂隅[단여모/더른여모], 斂衣[여미]’로, 『中和殿營建都監儀軌』(1907)에는 ‘余隅[여모]’, 『慶運宮重建都監儀軌』(1907)에는 ‘廉隅[여모]’로 표기하였다.

3-16. 벽장문

‘벽장문’은 ‘壁櫪門’으로 표기하였다.

壁櫪門四隻 『西闕營建都監儀軌』(庚寅二

月日、後、星鳥門……所入)

‘壁櫪門’은 ‘벽장문’의 차자표기이다. 다른 의례에서는 ‘壁莊門’으로도 표기하였다.

### 3-17. 서까래

‘서까래’는 근대국어에서 ‘섯가래’ 또는 ‘헛가래’로 실현되었는데, ‘椽’으로 표기하였다.

椽[섯가래·연], 婦椽[부연], 長椽[장연>장연], 扇子椽[선조연>선자연], 中短椽[등단연>중단연], 上短椽[상단연>상단연], 方椽[방연·모서까래], 長方椽[장방연 > 장방연], 短方椽[단방연]

婦椽二百十二箇 婦椽盖板二百十二立〔修粧木頭折取用〕……長椽一百箇 扇子椽九十二箇 中短椽七十四箇內〔五十四箇 椽木頭折取用〕 短椽七十四箇〔椽木頭折取用〕 上短椽三十七箇〔椽木頭折取用〕 『西關營建都監儀軌』(辛卯三月日, 實入, 隆福殿十五間材木)

長方椽九箇 短方椽九箇 『西關營建都監儀軌』(辛卯三月日, 實入, 延慶門材木鐵物)

方椽盖板三十二立〔邊板取用〕 方椽二百四箇 『西關營建都監儀軌』(辛卯三月日, 實入, 德遊堂……材木鐵物)

‘椽’은 ‘서{椽 서 연(훈몽-중, 6)} > 셋가래(椽 셋가래(동해, 상35)) > 헛가래’의 혼독자 표기 또는 ‘연’의 음독자 표기로 쓰인다. ‘長椽’과 ‘短椽’은 각각 현대 국어의 ‘장연·장여’와 ‘단연·단여’에 대응하는 표기이다. 각각을 ‘긴섯가래(긴 서까래)’, ‘더튼섯가래(짧은 서까래)’의 표기로도 볼 수 있으나, 『昌慶宮營建都監儀軌』(1834)의 “上端椽盖板”의 ‘端椽’과 같은 표기를 고려할 때 ‘短椽’은 ‘단연’의 차자표기임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椽’은 ‘단여·단연, 장여·장연, 부연’ 등을 고려할 때 일찍부터 그냥 ‘연’으로 통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短椽[단연]’은 놓이는 위치에 따라 ‘上短椽[상단연]’과 ‘中短椽[등단연]’ 등으로 나뉜다.

‘婦椽’은 ‘부연{簷椽 부연(한청, 9:69), 婦椽 부연 簷椽(광보, 궁실부)}’, ‘長椽’은 ‘장연 > 장연’, ‘扇子椽’은 ‘선조연 > 선자연’, ‘中短椽’은 ‘등단연 > 중단연’, ‘上短椽’은 ‘상단연 > 상단연’의 차자표기이다. ‘方椽’은 ‘방연’ 또는 ‘모서까래(현대 국어사전에는 ‘네모서까래’로 등재하였다.)’의 차자표기이다.

현대국어에서는 ‘婦椽’을 ‘며느리서까래’, ‘扇子椽’을 ‘선자서까래’라고도 한다. 그런데 ‘婦椽’의 경우, 『孝宗寧陵山陵都監儀軌』(1659)에는 ‘付緣[부연]’으로, 『華城城役儀軌』(1796)에는 ‘浮椽[부연]’으로, 『慶運宮重建都監儀軌』(1907)에는 ‘婦椽[부연]’으로 표기하고, 근대국어 자료에서도 ‘부연’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일찍부터 ‘부연’이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며느리서까래’라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만든 것으로 보인다.

### 3-18. 박공

‘박공’은 ‘朴工’으로 표기하였다.

朴工四立 『西關營建都監儀軌』(辛卯三月日, 實入, 隆福殿十五間材木)

月乃朴工一立〔邊板取用〕 『西關營建都監儀軌』(辛卯三月日, 實入, 思賢閣……材木鐵物)

‘朴工’은 ‘박공’의 차자표기이다. 중세국어의 ‘박공(膊 박공 박(훈몽-중, 6))’, 근대국어의 ‘박공(膊風 박공(역해, 상17))’과 ‘박공(風面 박공(역해, 13), 膊風 박공(물보, 제택))’, 현대국어의 ‘박공((膊樑/樑樑)’에 대응한다. ‘박공’은 맞배지붕 양편에 스꼴로 붙여 놓은 두꺼운 널빤지를 이른다. ‘月乃朴工’은 ‘달니 박공 > 달래박공’의 차자표기이다. 그런데 『신편 한국건축사전』(1998:389)에는 ‘다리 박공(달내박공): 솟을지붕의 아래 지붕에서 박공이 기둥 바깥으로 짧게 내민 박공’이라고 하고, 『한국한자어사전』(권2:807)에서는 ‘다래박공: 길이가 짧은 것에 이어대는 박공’이



라 하였다. 『中和殿營建都監儀軌』(1907)와 『慶運宮重建都監儀軌』(1907)에서 ‘達乃朴工[달너박공]’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원래 ‘달러박공’ 정도로 불렸던 것으로 보인다.

### 3-19. 솔대

‘솔대’는 ‘松竹’으로 표기하였다.

松竹三十六箇〔邊條里取用風板所入〕『西關營建都監儀軌』(辛卯三月日, 實入, 隆福殿十五間材木)

‘松竹’은 ‘솔대’의 차자표기로, 판장 틈이나 문설주 따위에 가늘게 오려 붙인 나무오리를 이른다. 『孝宗寧陵山陵都監儀軌』(1659)에서는 ‘所乙竹·松竹[솔대]’으로 표기하였다.

### 3-20. 사목

‘사목’은 근대국어에서 ‘샤목’이라 한 것으로 보이고, ‘斜木’으로 표기하였다.

斜木二十箇〔風板所入〕『西關營建都監儀軌』(辛卯三月日, 實入, 隆福殿十五間材木)

‘斜木’은 ‘샤목(斜 빗길 샤<유합, 하62>)> 사목’의 차자표기이다. 『垂恩廟營建廳儀軌』(1764)에서는 ‘士目[스목]·斜木[샤목]’으로 표기하였다. 『한국한자어사전』(권2, 682)에는 “斜木(샤목): 틀을 짤 때에 견고하도록 비껴 대는 나무”라 하고, 장기인(1998:389)에는 “샤목(斜木): 풍판을 붙여대는 뼈대가 되는 재. 흔히 경사재로 씀.→풍판사목(風板斜木).=집부사(執扶舍)”, “장사목(長斜木): 길게 경사로 건너지르는 띠장, 받침대 따위”, “풍판사목(風板斜木): 풍판을 받는 띠장이나 경사재.=사목. 집우새(執扶舍)”라고 하였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집우새’를 등록하고, ‘박공, 까치박공의 윗머리 뒤에 덧내어 보강한 널’이라 하였다. ‘斜木’은 『昌慶宮營建都監儀軌』(1834)에서 확인되는 ‘執扶舍[집부사]’와 현대국어 ‘집우새’ 등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西關營建都監儀軌』에서는 ‘斜

木’이 ‘風板所入’이라 하여 ‘風板’에 들어가는 것이라 한 것으로 보아, 장기인(1998:389)에서 확인되는 ‘風板斜木(풍판사목)’에 바로 대응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3-21. 모끼

‘모끼’는 ‘木只’로 표기하였다.

木只四十箇〔頭折木取用〕『西關營建都監儀軌』(辛卯三月日, 實入, 隆福殿十五間材木)

‘木只’는 ‘모끼’의 차자표기로, 박공지붕·합각지붕에서 박공널에 직각으로 거는 서까래를 이른다. 현대국어에서는 ‘모끼연(—椽)’이라 하고 있다. 『孝宗寧陵山陵都監儀軌』(1659)에서는 ‘隅只[모끼], 隅椽[모끼연/모끼섯가래]’로 표기하였다. 한편 이 책의 “隅知項朴只八寸頭釘三十介”에 보이는 ‘隅知’는 ‘隅只’의 다른 표기로 보인다. 그렇다면 ‘隅知’는 ‘모끼’의 차자표기인 ‘隅只’의 음 ‘우지’의 표기가 아닌가 한다. 『中和殿營建都監儀軌』(1907)에는 ‘木只椽[모끼연/모끼섯가래]’으로 표기하였다. 현대국어에서도 ‘모끼연’이라고 하고 있으나, 이는 ‘모끼’에 ‘椽’을 덧붙인 것임을 알 수 있다.

### 3-22. 평고대

‘평고대’는 근대국어에서 ‘평교디’ 또는 ‘평교디’로 실현되는데, ‘平交臺’로 표기하였다.

平交臺[평교디], 初平交臺[초평교디], 再平交臺[재평교디], 初·再平交臺[초·재평교디]

初再平交臺三十二箇『西關營建都監儀軌』(辛卯三月日, 實入, 隆福殿十五間材木)

平交臺二十三箇『西關營建都監儀軌』(辛卯三月日, 實入, 會祥殿……材木鐵物)

‘平交臺’는 ‘평교디{連簷 평교디(한청 9:69), 檁椳 평교디 連檐(광재물보, 궁실부)} > 평교대’의 차자표기로, 근대국어의 ‘평교즈{평교즈 亮輻(동문해-하19)}, 현대 국어의 ‘평고

대(平高臺), 평고자(平高子), 평교대(平交臺), 평교자(平交子)에 대응한다. '평교대'는 처마에 얹힌 서까래 끝에 가로로 길게 얹힌 나무를 이른다. '初再平交臺'는 '초·재평교대 > 초·재평교대'의 차자표기로, 처마서까래의 평교대와 부연평교대를 이른다. 이때의 '평교대'는 '초평교대 이매기'라 하고, '부연평교대'는 '재평교대 이매기'라고 한다. 현대국어에서는 '평고대'와 '평교대'를 인정하면서도, '초평고대'의 경우는 '초평교대'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孝宗寧陵山陵都監儀軌』(1659)에서는 '平古代[평고디]'로, 『垂恩廟營建廳儀軌』(1764)에는 '平交臺[평교디]'로, 『文禧廟營建廳瞻錄』(1789)에서는 '平交臺[평교디], 加平交臺·加平交臺[덧평교디]', 『中和殿營建都監儀軌』(1907)에는 '平交臺[평교디], 加平交臺[덧평교디], 初平交臺[초평교디], 再平交臺[재평교디]'로 표기하였다. 이로 보아 '평고대'는 원래 '평고디'라 하다가 '평교디'라 하고, 다시 '평고대'라 한 것으로 보인다.

### 3-23. 신방

'신방'은 '信防'으로 표기하였다.

信防二箇〔邊板取用虛家所入〕『西關營建都監儀軌』(辛卯三月日, 實入, 隆福殿十五間材木)

柱信防次湖木七箇 『西關營建都監儀軌』(辛卯三月日, 實入, 內局中門……所入)

'信防'은 '신방'의 차자표기로, 일각대문의 기둥 밑에 가로놓인 짧은 베갯목을 이른다. '柱信防'은 '기둥신방 > 기둥신방'의 차자표기이다. 『垂恩廟營建廳儀軌』(1764)에서는 '信方[신방]'으로 표기하고, 『哲宗大王國都監儀軌』(1864, 권1)에서는 '信枋[신방]'으로 표기하였다. 현대 국어사전류에서 '신방'의 한자를 '信防'으로 쓰고 있는데 이는 '신방'에 대응하는 한자가 아니라 차자표기의 하나일 뿐이다.

### 3-24. 물레목

'물레목'은 근대국어에서 '문니목' 또는 '문리목'으로 실현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文乃木'으로 표기하였다.

文乃木三百八十九箇 『西關營建都監儀軌』(辛卯三月日, 實入, 假家及機械雜物)

'文乃木'은 '문니목'의 차자표기이다. 현대국어의 '물레목'에 대응한다. 근대국어에서는 '문리목' 정도로 불렀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휘는 현재 고건축사전이나 국어사전 등에서 확인할 수 없으나, 각종 의궤에서 확인할 수 있다. 『西關營建都監儀軌』에서는 '假家及機械雜物'이라 하여 '大椽, 中椽, 小椽, 草飛介[새늘개 > 새나래]' 등과 함께 쓰인 것으로 보아, 大椽, 中椽, 草飛介 따위를 누르는 데 쓰는 부재목으로 추정된다. 『顯思宮別廟營建都監儀軌』(1824)에서는 '別工作所入'이라 하여, 역시 大椽, 中椽, 小椽 등과 함께 쓰였다. 여기에 나타나는 大椽은 '큰 서까래'가 아니라 '큰 서까래'로 쓰는 나무, 곧 大椽木(대연목)을 이른다.

### 3-25. 종심

'종심'은 '宗心'으로 표기하였다.

宗心〔종심〕, 宗心木〔종심목〕, 春舌宗心木〔춘혀종심목〕, 中宗心木〔중종심목〕

宗心木四箇……春舌宗心木四箇 中宗心木八箇 『西關營建都監儀軌』(辛卯三月日, 實入, 隆福殿十五間材木)

'宗心'은 '종심', '宗心木'은 '종심목'의 차자표기이다. '종심'은 건물의 간 사이의 중앙에 있는 지붕마루 부분을 일컫거나 지붕마루도리를 일컫는다. '종심목'은 지붕마루에 얹는 정심재를 이른다. 추녀로 쓰는 종심목은 '春舌宗心木[춘혀종심목]'이라 한다. '中宗心木'은 '중종심목'의 차자표기로, 용마루 또는 중도리 위에 있는 적심목을 이른다. 『昌慶宮營建都監儀軌』(실입, 경춘전)에서는 "春舌宗心

四箇 抹樓宗心七箇”라 하여 ‘春舌宗心’과 ‘抹樓宗心’이 보인다. 『文禧廟營建廳瞻錄』(1789)에서는 ‘春舌抹樓心[춘혀말루심], 春舌靛防[춘혀덜방]’도 보인다.

### 3-26. 중방

‘중방’은 근대국어에서 ‘중방’으로 실현되었는데, ‘中防’으로 표기하였다.

中防[등방 > 중방], 引防[인방], 畫引防[화인방], 引中防[인등방 > 인중방], 上引防[웃인방]

中防十四箇 引防七箇 『西闕營建都監儀軌』(庚寅二月日, 後, 德應房……所入)

引中防遠音竹合一百十九箇 『西闕營建都監儀軌』(辛卯三月日, 實入, 隆福殿十五間材木)

引中防合五十四箇 『西闕營建都監儀軌』(辛卯三月日, 實入, 外燒酒房……材木鐵物)

引中防二箇 『西闕營建都監儀軌』(辛卯三月日, 實入, 延慶門材木鐵物)

畫引防八箇 『西闕營建都監儀軌』(庚寅二月日, 後, 會祥殿十八間材木)

上引防二十三箇半 『西闕營建都監儀軌』(辛卯三月日, 實入, 假推障子欄干材木鐵物)

中防十四箇 引防七箇 『西闕營建都監儀軌』(庚寅二月日, 後, 德應房……所入)

‘中防’은 ‘등방{中 가운데 뚝(유합, 상2), 가운데 뚝(천자-석)} > 중방{山柁 중방(광보, 궁실부)} > 중방’의 차자표기로, 벽의 중간에 건너지른 인방을 이른다. 중인방이라고도 한다. ‘引防’은 ‘인방(門楣 인방(광보, 궁실부))’의 차자표기로, 벽을 치거나 문골을 내기 위하여 기둥 사이에 가로 건너지른 나무를 이른다. 문짝의 위아래 틀과 나란하게 놓는데, 위쪽 인방을 ‘上引防’이라 하고 아래쪽 인방을 ‘下引防’이라 한다. ‘畫引防’은 ‘화인방’의 표기로, 그림을 그린 인방을 이른다. ‘引中防’

은 ‘인등방 > 인중방’의 차자표기로, 인방과 중방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현대 국어사전에서는 ‘인중방’을 ‘인방과 중방’, 또는 ‘상인방과 중인방’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고 하였다.

『文禧廟營建廳瞻錄』(1789)에서는 ‘中防[등방], 短中防[단등방], 引防[인방], 引中防[인등방], 短引防[단인방/더른인방], 長引防[당인방 > 장인방/긴인방], 分閣引防[분합인방]’ 등을, 『垂恩廟營建廳儀軌』(1764)에는 ‘中方·中枋[등방], 引枋·引方[인방], 上下引方[상하인방], 中引方[등인방], 短中方[단등방/더른등방], 短引方[단인방/더른인방]’ 등을, 『哲宗大王國葬都監儀軌』(1864, 권1, 實入)에서 ‘中枋[등방], 中枋木[등방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현대 국어사전류에서 ‘중방’에 대응하는 한자를 ‘中枋’으로 쓰고 있는데, 이는 차자표기 중 하나일 뿐이다.

### 3-27. 장선

‘장선’은 근대국어에서 ‘장산이’로 실현되었고, ‘長散伊’로 표기하였다.

長散伊六箇 『西闕營建都監儀軌』(庚寅二月日, 後, 內兵曹大廳……所入)

‘長散伊’는 ‘장산이’의 차자표기이다. ‘長山’으로도 표기하였는데, 마루 밑을 일정한 간격으로 가로로 대어 마루청을 받치게 된 나무를 이른다. 현대 국어사전에서는 ‘장사니’를 ‘장선(長線)’의 잘못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文禧廟營建廳瞻錄』(1789)에서는 ‘長床伊[장상이]’, 『華城城役儀軌』(1796)에서는 ‘長山[장산]’, 『中和殿營建都監儀軌』(1907)과 『慶運宮重建都監儀軌』(1907)에서는 ‘長散里[장산리→장산이]’ 등으로 표기한 것으로 보아 일찍부터 ‘장산이 > 장산이[장사니]’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3-28. 귀틀

‘귀틀’은 ‘耳機’로 표기하였다.

耳機[귀틀], 長耳機[장귀틀]

長耳機三箇……耳機三十八箇 『西關營建都監儀軌』(辛卯三月日, 實入, 隆福殿十五間材木)

‘耳機’는 ‘귀틀’, ‘長耳機’는 ‘장귀틀’의 차자 표기이다. ‘귀틀’은 ‘마루를 놓기 위하여 먼저 굽은 나무로 가로세로 짜 놓은 틀’로, 가로로 들이는 것을 동귀틀, 세로로 들이는 것을 장귀틀이라 한다. 또 ‘네모진 목재나 통나무 따위를 써서 가로세로 어긋나게 井자 모양으로 짠 틀’을 이른다. 『垂恩廟營建廳儀軌』(1764)에는 ‘抹樓長耳機[말루장귀틀 > 마루장귀틀], 短耳機[단귀틀/더른귀틀], 歸機[귀틀]’을, 『文禧廟營建廳瞻錄』(1789)에서는 ‘耳機[귀틀], 長耳機[장귀틀/긴귀틀], 短耳機[단귀틀/더른귀틀]’을, 『慶運宮重建都監儀軌』(1907)에서는 ‘同耳機[동귀틀], 立耳機[선귀틀]’ 등으로 표기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3-29. 머름

‘머름’은 ‘遠音’으로 표기하였다.

遠音[머름], 遠音竹[머름대], 遠音童子[머름동즈], 遠音廳板[머름청널]

引中防遠音竹合一百十九箇……遠音大小童子合一百三十三箇 遠音廳板一百十六立 『西關營建都監儀軌』(辛卯三月日, 實入, 隆福殿十五間材木)

‘遠音’은 ‘머름’의 차자표기이다. 머름은 아랫중방(하인방)과 문지방 사이에 널조각 따위를 대어 꾸미는 부분으로, 머름동자를 세우고 머름청널을 대어 완성한다. ‘遠音竹’은 ‘머름대’의 차자표기로, 머름 밑에 가로지른 나무를 이른다. ‘遠音童子’는 ‘머름동즈’의 차자표기이다. ‘머름동즈’는 크기에 따라 ‘遠音大童子, 遠音小童子’로 나뉘는데, 머름중방 사이에 세로로 끼운 작은 기둥을 이른다. ‘遠音廳板’은 ‘머름청널’의 차자표기이다.

### 3-30. 반자

‘반자’는 근대국어에서 ‘반즈’로 실현되었고, ‘斑子’로 표기하였다.

斑子[반즈], 斑子小欄[반즈쇼란], 斑子大欄[반즈다란], 斑子廳板[반즈청널]

斑子小欄六百四十八箇(邊條里取用) 斑子大欄九十七箇 斑子廳板七十二立……斑子九十隻 『西關營建都監儀軌』(辛卯三月日, 實入, 隆福殿十五間材木)

‘斑子’는 ‘반즈[浮篷 초개집의 역거 띄워싼 반즈 仰板 널로 짠 반즈(역해, 상19), 頂隔 반즈(한칭, 9:69), 天花板 솟 그린 반즈(역해, 상:19), 天花板(即綺井也) 우물반즈(광보, 궁실부)]’의 차자표기이다. 『孝宗寧陵山監儀軌』(1659)에는 ‘盤子[반즈]’허, 『文禧廟營建廳瞻錄』(1789)에서는 ‘斑子[반즈]’로, 『昌慶宮營建都監儀軌』(1834)에는 ‘斑子[반즈]’로 표기하였다. 현대국어의 ‘반자’에 대응하는데, 바닥을 평평하게 만든 천장을 이른다. ‘斑子小欄’은 ‘반즈쇼란’의 차자표기로, 반자의 한 부속품을 이른다. ‘小欄’은 현대국어의 ‘쇼란(小欄)’에 대응하는데, 반жат대 사이에 있는 우물쇼란을 이른다. ‘斑子大欄’은 ‘반즈다란’의 차자표기로, 반자널을 엮기 위하여 반자에 덧댄 오리목을 이른다. ‘大欄’은 음이 ‘대란’이지만 현대국어 ‘다라니(반жат대)’에 대응하는 표기이다. 현대국어 ‘다라니’는 ‘다란’에 다시 명사형성접사 ‘-이’가 붙어 형성된 것으로, 이에 대응하는 표기가 『慶運宮重建都監儀軌』(1907, 尺量)에 ‘多案里[다라니]’로 표기하였다. ‘大欄’의 ‘大’는 ‘大紅[다홍]’의 경우와 같이 ‘다’의 음가자 표기로 보인다. 특히 ‘多欄[다란]’과 ‘多案[다란]’의 표기를 참고할 수 있다.

『孝宗寧陵山陵都監儀軌』(1659)에는 ‘盤子大欄[반즈다란], 小欄[쇼란]’ 등으로, 『垂恩廟營建廳儀軌』(1764)에는 ‘斑子長大欄[반즈장다란], 列大欄[열다란], 同大欄[동다란], 斑子小欄[반즈쇼란]’ 등으로, 『文禧廟營建廳瞻錄』(1789)에서는 ‘斑子大欄[반즈다란], 童多

欄·童大欄[동다란], 小欄[쇼란], 月箭小欄[달살쇼란] 등으로, 『慶運宮重建都監儀軌』(1907)에서는 ‘多欄[다란]·多案[다안] 長多欄[장다란]·長多案[장다란], 同多欄[동다란]·同多案[동다란], 小欄[쇼란]·小案[쇼안]’ 등으로, 『昌慶宮營建都監儀軌』(1834)에서는 ‘斑子多欄[반즈다란]’으로, 『中和殿營建都監儀軌』(1907)에서는 ‘長多欄[장다란/긴다란], 間多案[셋다란], 同多欄[동다란], 小欄[쇼란]’ 등으로 표기하였다.

‘斑子廳板’은 ‘반즈청널’의 차자표기로, 반자로 대는 널빤지(반자널)를 이른다.

### 3-31. 분합

‘분합’은 ‘分閤’으로 표기하였다.

分閤[분합], 細箭廳板分閤[세살청널분합], 細滿箭短分閤[세만살단분합], 滿箭廳板分閤[만살청널분합], 滿箭短分閤[만살단분합], 細滿箭廳板分閤[세만살청널분합], 細滿箭短分閤[세만살단분합], 細箭分閤[세살분합], 滿箭分閤[만살분합] 假退廉隅板分閤[헛퇴염모널분합]

細箭廳板分閤一隻……細滿箭短分閤四十四隻 『西闕營建都監儀軌』(辛卯三月日, 實入, 隆福殿十五間材木)

細箭廳板分閤十六隻……滿箭廳板分閤二十五隻 『西闕營建都監儀軌』(辛卯三月日, 實入, 會藏閣五間材木)

滿箭短分閤四十六隻 『西闕營建都監儀軌』(辛卯三月日, 實入, 會祥殿十八間材木)

細滿箭廳板分閤十隻……細滿箭短分閤二十隻 『西闕營建都監儀軌』(辛卯三月日, 實入, 思賢閣……材木鐵門)

細箭分閤一隻 滿箭分閤十一隻 『西闕營建都監儀軌』(庚寅二月日, 後, 興泰門……所入)

假退廉隅板分閤十隻 『西闕營建都監儀軌』(庚寅二月日, 後, 星鳥門……所入)

‘分閤’은 ‘분합’의 차자표기로, ‘분합문’이라

고도 한다. 분합은 대청 앞쪽 전체에 드리는 긴 문을 이른다. ‘細箭廳板分閤’은 ‘세살청널분합’의 차자표기이다. 『신편 한국건축사전』(1998:411)에서는 ‘세살청판분합’이라 하였다. ‘세살[細箭]’은 ‘ㄴ은살’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세살장지(청언·원, 61)’를 고려할 때 ‘세살 > 세살’의 표기라 할 수 있다. ‘廳板’도 ‘청널’의 표기라 할 수 있다. ‘細滿箭短分閤’은 ‘세만살단분합’의 차자표기이다. 이것은 가는 살을 좁은 간격으로 짜고 궁창널을 끼우지 아니하고 낮게 된 분합문을 이른다. ‘滿箭廳板分閤’은 ‘만살청널분합’의 차자표기이다. 이것은 격자살이 온 창호면에 일정 간격의 격자로 짜고 밑에 궁창판을 끼운 분합문을 이른다. ‘滿箭短分閤’은 ‘만살단분합’의 차자표기이다. ‘假退廉隅板分閤’은 ‘헛퇴염모널분합’의 차자표기이다.

### 3-32. 장군목

‘장군목’은 근대국어에서 ‘장근목’으로 실현되었고, ‘杖闔木’으로 표기하였다.

杖闔木次大椽一箇 『西闕營建都監儀軌』(庚寅二月日, 後, 興泰門……所入)

‘杖闔木’은 ‘장근목’의 차자표기로, 현대국어의 ‘장군목(將軍木)’에 대응한다. ‘장군목[將軍木]’은 궁문이나 성문 따위의 큰문을 닫고 잠글 때에, 빗장처럼 가로지르는 굵고 긴 나무를 이르는데, 두 쪽에 있는 구멍에 두 끝을 끼고, 문짝에 달린 고리를 이 나무에 걸게 되어 있다. ‘장근목’이 나중에 ‘장군목’으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 3-33. 장자

‘장자’는 근대국어에서 ‘장즈’ 또는 ‘장지’로 실현되었고, ‘障子’로 표기하였다.

障子[장즈·장지>장즈·장지], 煙窓障子[연창장즈·연창장지], 推障子[밀장즈·밀장지], 完子推障子[완즈밀장즈·완즈밀장지], 橫障子[가로장즈·가로장지], 間障子[셋장즈·

셋장지], 滿箭障子[만살장즈·만살장지], 滿箭廳板障子[만살청닐장즈·만살청닐장지]

煙窓障子十六尺 完子推障子二十六隻 障子十二隻……上下橫障子三十四隻 『西關營建都監儀軌』(辛卯三月日, 實入, 隆福殿十五間材木)

紙壁障子二隻 『西關營建都監儀軌』(庚寅二月日, 後, 會祥殿十八間材木)

間障子十二隻 『西關營建都監儀軌』(辛卯三月日, 實入, 內燒酒房十二間材木鐵物)

滿箭障子九十三隻 滿箭廳板障子二十六隻 『西關營建都監儀軌』(辛卯三月日, 實入, 假推障子欄干材木鐵物)

‘障子’는 ‘장즈 > 장지’ 또는 ‘장지 > 장지’의 차자표기로, 근대국어의 ‘장즈{한습아 세 한습아 네 어니 틸으로 들어온다 고모장즈 세살장즈 가로다지 여다지 암돌저귀 수돌저귀 비목 걸새 똑닥 박고(청언-원, 63)}’와 근대국어·현대국어의 ‘장지{이 내 가슴에窓 내고자 고모장지 세살장지 들장지 열장지……크나 큰 장도리에 쫘닥 바가(청언-원, 61)}’에 대응한다. ‘煙窓障子’는 ‘연창장즈·연창장지’, ‘推障子’는 ‘밀장즈·밀장지’, ‘完子推障子’는 ‘완즈밀장즈·완즈밀장지’, ‘橫障子’는 ‘가로장즈·가로장지’, ‘間障子’는 ‘간장즈·간장지’, ‘滿箭障子’은 ‘만살장즈·만살장지’, ‘滿箭廳板障子’는 ‘만살청닐장즈·만살청닐장지’의 차자표기이다.

‘장즈·장지’는 방의 아랫간이나 또는 방과 마루 사이에 가리어 막은 문으로, 미단이와 같이 되었으나 운두가 썩 높고 문지방이 낮게 되어 있다. 밀장지는 옆으로 밀어서 여닫는 문을 이른다. ‘完子(완즈)’는 卍(완)자 꼴로 된 무늬를 뜻하는 것으로, ‘完子推障子[완즈밀장즈·완즈밀장지]’는 완자무늬가 있는 밀장지를 이른다. ‘가로장지’는 가로 여닫는 장지문(가로닫이문)을 이르는데, 오늘날 국어 사전에는 ‘횡장지, 횡장자(橫障子)’를 등재하고 ‘방안의 외풍을 막으려고 네 벽에 나무오

리를 덧대고 종이로 싸 바른 장지’라고 설명하였다. ‘셋장지’는 방의 칸과 칸 사이를 막는 장치를 이른다.

### 3-34. 창

‘창’은 ‘窓’으로 표기하였다.

窓[창], 斜窓[빗창], 雙窓[쌍창], 黑窓[흑창], 影窓[영창], 長影窓[장영창], 匣窓[갑창], 獨窓[독창], 長匣窓[장갑창], 分閣障子雙窓[분합장즈쌍창·분합장지쌍창], 廣窓[광창], 滿箭廣窓[만살광창], 舉乙窓[들창]

斜窓八隻……雙窓八隻……黑窓六隻 影窓九隻 匣窓六隻 長影窓四十四隻 長匣窓一隻 『西關營建都監儀軌』(辛卯三月日, 實入, 隆福殿十五間材木) 分閣障子雙窓壁楯合八十四箇 『西關營建都監儀軌』(辛卯三月日, 實入, 隆福殿十五間材木)

廣窓二隻 滿箭廣窓 『西關營建都監儀軌』(辛卯三月日, 實入, 集慶堂西行閣十八間材木)

舉乙窓二隻……壁楯門八隻 『西關營建都監儀軌』(辛卯三月日, 實入, 正始閣……窓隻鐵物)

‘窓’은 ‘창{窓 창 창 在屋曰窓(훈몽-초, 중:3)} > 창’의 차자표기이다. 창 관련 어휘는 대부분 한자어와 결합하여 주로 ‘一窓’의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舉乙窓[걸창]’과 ‘斜窓[빗창]’, ‘箭[살]’ 정도가 고유어이다. ‘斜窓’은 ‘빗창’, ‘雙窓’은 ‘쌍창’, ‘黑窓’은 ‘흑창’, ‘影窓’은 ‘영창’, ‘長影窓’은 ‘장영창’, ‘匣窓’은 ‘갑창’, ‘長匣窓’은 ‘장갑창’, ‘分閣障子雙窓’은 ‘분합장즈쌍창 > 분합장지쌍창’, ‘廣窓’은 ‘광창’, ‘滿箭廣窓’은 ‘만살광창’, ‘舉乙窓’은 ‘들창’의 표기이다. ‘빗창’은 문살을 가로세로 비스듬하게 비껴 넣어서 짠 창으로, ‘빗살창’과는 다른 것으로 보인다. ‘쌍창’은 두 쪽이 달린 창문을 이른다. ‘흑창’은 덧문과 영창 사이에 있는 안팎으로 두꺼운 종이를 바른 문을 이르고, ‘영창’은 방을 밝게 하기 위하여, 방과

마루 사이에 낸 두 쪽의 미닫이를 이르는데, 국어사전에는 ‘映窓’으로 등재하였다. ‘갑창’은 찬바람이나 밝은 빛을 막기 위하여, 미닫이 안쪽에 덧끼우는 미닫이를 이르는데, 국어사전에는 ‘甲窓’으로 등재하였다. ‘분합장조쌍창’은 두 짝 단이로 된 장지문을 이른다.

### 3-35. 지계

‘지계’는 ‘지계문’을 이르는데, ‘支介’로 표기하였다.

支介[지계], 滿箭廳板支介[만살청닐지계]

滿箭廳板支介二隻 『西闕營建都監儀軌』  
(辛卯三月日, 實入, 集慶堂西行閣十八間材木)

支介七隻 『西闕營建都監儀軌』(庚寅二月日, 後, 星鳥門……所入)

‘支介’는 ‘지계’의 유사음 ‘지계[戶 지계 호(천자-석, 21)]’의 차자표기이다. ‘之介’로도 표기하였다. ‘지계’는 밖에서 방으로 드나드는 외쪽 문인 지계문을 이르는데, 돌쩌귀를 달아 여닫으며 안팎으로 두꺼운 중이를 받았다. ‘滿箭廳板支介’는 ‘만살청닐지계’의 차자표기로, 격자살로 짜고 밑에 청닐을 끼운 외쪽문을 이른다. 『昌慶宮修理都監儀軌』(1633)에서는 ‘戶·之介[지계], 踈戶·踈之介[성권지계], 獨戶·獨之介[외지계], 密戶[밀지계]’ 등으로 표기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文禧廟營建廳謄錄』(1789)에서는 ‘之介·支介[지계], 舍之介[맞지계], 之支[지지?]’ 등으로 표기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3-36. 대

‘대’는 ‘竹’으로 표기하였다.

竹[대], 上竹[윗대], 下竹[아랫대]

長匣窓一隻 上下竹三十四箇 『西闕營建都監儀軌』(辛卯三月日, 實入, 隆福殿十五間材木)

‘竹’은 ‘대’의 차자표기로, 띠 모양의 목재 따위를 이른다. 여기서는 창문 위아래에 대

는 창문대를 이른다.

### 3-37. 지방

‘지방’은 근대국어에서 ‘디방’으로 실현되었는데, ‘地防’으로 표기하였다.

地防[디방 > 지방], 上下地防[상·하디방 > 상·하지방]

上下地防十四箇 『西闕營建都監儀軌』(辛卯三月日, 實入, 隆福殿十五間材木)

上下地防壁植合八箇 『西闕營建都監儀軌』(辛卯三月日, 實入, 集慶堂十二間材木)

‘地防’은 ‘디방 > 지방’의 차자표기, 근대국어의 ‘디방(門 디방(동신, 열1:8), 門坎 門 디방(역해, 상18)), {闕 문지방 畿(광보, 궁실부)}, 현대 국어의 ‘지방, 문지방’에 대응한다. ‘문지방(門地枋)’은 문설주 사이의 문 밑에 마루보다 조금 높게 가로 댄 나무를 이른다. 『孝宗寧陵山陵都監儀軌』(1659)에서는 ‘地防[디방]’으로, 『垂恩廟營建廳儀軌』(1764)에서는 ‘地枋[디방]’으로, 『文禧廟營建廳謄錄』(1789)에서는 ‘地方·地防[디방 > 지방], 上地方·上地防[윗디방 > 윗지방/상디방 > 상지방], 下地方[알디방 > 알지방/하디방 > 하지방], 上下地方[상하디방 > 상하지방], 門上下地方[문상하디방 > 문상하지방]’ 등으로, 『慶運宮重建都監儀軌』(1907)에서는 ‘支防[지방], 加支防[가지방]’ 등으로 표기하였다.

### 3-38. 주죽

‘주죽’은 근대국어에서 ‘기둥대’라 한 것으로 보이고, ‘柱竹’으로 표기하였다.

柱竹二十七箇 『西闕營建都監儀軌』(辛卯三月日, 實入, 隆福殿十五間材木)

‘柱竹’은 ‘기둥대 > 기둥대’의 차자표기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주죽’으로 등재하고, ‘덧흙대의 끝에 세워서 문이 떠밀려 들어가지 아니하게 막아대는 설주’라고 하였다.

3-39. 벽선

‘벽선’은 ‘벽楨’으로 표기하였다.

分閣障子雙窓壁楨合八十四箇 斜窓壁楨二十四箇……壁楨十四箇 『西闕營建都監儀軌』(辛卯三月日, 實入, 隆福殿十五間材木)

上下地防壁楨合八箇 『西闕營建都監儀軌』(辛卯三月日, 實入, 集慶堂十二間材木)

‘벽楨’의 현대음은 ‘벽훤’이나 ‘벽선 > 벽선’을 차자표기한 것이다. 현대 국어사전에서는 ‘벽선(壁線)’이라 하고, ‘기둥과 벽 사이에 붙여 세우는 네모진 굵은 나무 또는 문설주’라 하였다. 벽 속에서는 인방과 중방을 버티게 되고 문호에서는 문짝을 고정시킨다. 『孝宗寧陵山陵都監儀軌』(1659)에서는 ‘壁楨[벽선], 土壁楨[토벽선]’으로, 『垂恩廟營建廳儀軌』(1764)에서는 ‘壁楨·壁楨[벽선], 土壁楨·土壁楨[토벽선]’으로, 『文禧廟營建廳騰錄』(1789)에서는 ‘壁楨[벽선>벽선], 分閣壁楨[분합벽선 > 분합벽선], 門壁楨[문벽선>문벽선], 土壁楨[토벽선>토벽선], 左右壁楨[좌우벽선>좌우벽선], 同介壁楨[동개벽선>동개벽선]’ 등으로, 『孝宗寧陵山陵都監儀軌』(1659)에는 ‘壁楨[벽선]’으로 표기하였다.

3-40. 누리개

‘누리개’는 ‘累里介’ 또는 ‘累里木’으로 표기하였다.

累里介四十五立(邊板取用) 『西闕營建都監儀軌』(辛卯三月日, 實入, 隆福殿十五間材木)

累里木二十二立(邊板取用) 『西闕營建都監儀軌』(辛卯三月日, 實入, 會藏閣五間材木)

‘累里介’는 ‘누리개’의 차자표기이다. ‘累里木’은 ‘누리목’의 차자표기이다. ‘누리개’는 수평개·경사재의 위 끝이 들리는 것을 막기 위하여 눌러 대는 나무인 ‘누리개, 누르개’에

대응한다. ‘累里木[누리목]’도 ‘累里介[누리개]’의 뜻으로 쓰였다. 『垂恩廟營建廳儀軌』(1764)에서는 ‘累里介·累里介[누리개]’로 표기하였다. ‘春舌累里介[춘혀누리개], 付緣累里介[부연누리개], 木只累里介[모기누리개], 中同累里介[등동누리개]’ 등이 있다.

3-41. 둔테

‘둔테’는 ‘屯太’로 표기하였다.

屯太二箇 帶二箇 門隻二隻 『西闕營建都監儀軌』(辛卯三月日, 實入, 延慶門材木鐵物)

屯太及帶次湖木一箇 『西闕營建都監儀軌』(庚寅二月日, 後, 延明門……材木)

‘屯太’는 ‘둔태’의 유사음 ‘둔테’의 차자표기이다. 문장부름 끼는 구멍이 뚫린 나무인 문둔테를 이르는데, 대개 두꺼운 널빤지로 되었다. 『孝宗寧陵山陵都監儀軌』(1659)에서는 ‘屯台[둔테]’로, 『垂恩廟營建廳儀軌』(1764)에서는 ‘屯太[둔테]’로, 『文禧廟營建廳騰錄』(1789)에서는 ‘屯太[둔테], 屯太木[둔테목], 上下屯太[상하둔테], 上屯太[상둔테]’ 등으로 표기하였다. ‘太’는 음이 ‘태’이지만 유사음 ‘테’의 음가자 표기로 쓰였다.

3-42. 띠

‘띠’는 근대국어에서 ‘띠’로 실현되고, ‘帶’로 표기하였다.

屯太二箇 帶二箇 門隻二隻 『西闕營建都監儀軌』(辛卯三月日, 實入, 延慶門材木鐵物)

屯太及帶次湖木一箇 『西闕營建都監儀軌』(庚寅二月日, 後, 延明門……材木)

‘帶’는 ‘띠(帶 띠 띠 又골뿔 及간홀 皆曰帶子(훈몽-비에, 중11ㄴ), 帶 띠 띠 又고로음 及간홀 皆曰帶子(훈몽-동국, 중11ㄴ), 帶 띠 띠(유합, 상31)) > 띠’의 차자표기이다. ‘띠’는 널을 붙여 대기 위하여 가로 대는 나무로, 덧장을 이른다. 다른 의궤에서는 ‘門帶[문띠]’



로도 표기하였다.

3-43. 문짝

문짝은 '門隻(문짝 > 문작)'으로 표기하였다.

屯太二箇 帶二箇 門隻二隻 『西關營建都監儀軌』(辛卯三月日, 實入, 延慶門材木鐵物)

門隻次實木二箇 屯太及帶次湖木一箇 『西關營建都監儀軌』(庚寅二月日, 後, 延明門……材木)

'門隻'은 '문짝 > 문작'의 차자표기이다. 문틀에 끼워서 여닫게 되어 있는 문의 한 짝을 이른다.

3-44. 우리목

'우리목'은 亏里木[우리목]으로 표기하였다.

亏里木四百六十箇 『西關營建都監儀軌』(辛卯三月日, 實入, 都已上)

'亏里木'은 '우리목'의 차자표기이다. 현대 국어의 '문어리·문얼굴·문틀(창문이나 문짝을 달거나 끼울 수 있도록 문의 양옆과 위아래에 이어 낸 테두리)' 또는 '울거미(문틀과 같이, 뼈대를 짜서 맞춘 것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 비고 위가 트인 물건의 가를 둘러싼 부분'에 대응한다. 보통 '板門亏里[널문우리], 亏里板門[우리널문]'의 형태로 표기하였다. 『垂恩廟營建廳儀軌』(1764)에서는 '亏里[우리], 內亏里[안우리], 四面亏里[스면우리>사면우리]'로, 『慶運宮重建都監儀軌』(1907)에서는 '亏里板門[우리널문]'으로 표기하였다.

3-45. 창살목

'창살목'은 '窓箭木(창살목 > 창살목)'으로 표기하였다.

窓箭木一千一百七十七箇 『西關營建都監儀軌』(辛卯三月日, 實入)

'窓箭木'은 '창살목 > 창살목'의 차자표기

이다. '창살[窓-]'은 창짝, 미닫이 등의 가로 세로로 지른 가는 나무오리 또는 비각, 종각, 사롱 따위의 벽 같은 데 세로로 죽죽 내리 지른 나무오리를 이른다.

4. 結語

지금까지 『西關營建都監儀軌』(1831)의 차자표기 중에서 목재류 건축 어휘의 목록을 정리하고 해독함은 물론 중세국어·근대국어·현대국어의 건축 어휘와 비교하여 설명하였다.

조선시대의 영건도감의궤의 차자표기를 제대로 해독해내면 조선 후기의 건축 관련 어휘를 상당수 되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잘못 쓰고 있는 어휘조차도 바로잡을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정리되면 우리나라의 고건축 어휘를 바로 정리할 수 있는 밑거름을 마련할 수 있고, 나아가 국어사전에 잘못 등재된 건축 어휘나 잘못 설명된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현대 표준어형, 『서궐영건도감의궤』의 차자표기, 차자표기 해독음 등의 순서로 제시하고, 비교에 필자들이 생각하는 고건축 용어의 대표형을 제시하며 결론을 대신한다.

현대국어	차자표기	해독음	비고
기둥	柱	[기둥]	기둥
고주·높은기둥	高柱	[노퐁기둥]	높은기둥
평주·평기둥	平柱	[평기둥]	평기둥
주두·기둥머리	柱頭	[기둥머리]	기둥머리
동자주·동자기둥	童子柱	[동종기둥]	동자기둥
보·들보	樑	[보·들보]	보·들보
대량·대들보	大樑	[대들보]	대들보
퇴량·뒷보	退樑	[뒷보]	뒷보
종량·마룻보	宗樑	[종보]	종보(종보)
보	樑	[보]	보
장보	合樑樑	[맞장보]	맞장보
충량	衝樑	[충보]	충보

도리	道里	[도리]	도리
굴도리	圓道里	[등근도리]	등근도리·굴도리
주도리·주심도리	柱道里	[기둥도리]	기둥도리
*	欄道里	[봇도리]	봇도리
대공	臺工	[다공]	대공
*	臺工所湯	[다공바탕]	대공바탕
창방	昌防	[창방]	창방
장여	長舌	[장혀]	장여
익공	翼工	[익공]	익공
보아지·양봉	柳阿支	[보아지]	보아지
행공	行工	[행공]	행공
화반	花斑	[화반]	화반
추녀	春舌	[춘혀]	추녀
*	春舌宗心木	[춘혀종심목]	추녀종심목
접시받침·소로·소루	小累	[소루]	소루
사래	蛇羅	[사라·사래]	사래
산방·갈모산방	散防	[산방]	산방
널	板	[널]	널
부연개판	婦緣盖板	[부연듬개널]	부연듬개널
선자개판	扇子盖板	선자듬개널	선자듬개널
풍판	風板	바람널	바람널
산자판·산자널	散子板	산자널	산자널
창널·창판·마루창·마룻장·마룻널·마루판	廳板	창널	창널
머름청판·머름착고·머름궁창	遠音廳板	머름청널	머름청널
*	斑子廳板	반자청널	반자청널
용지판	龍階板	용지널	용지널
문판	門板	문널	문널
*	假退長廳板	헛퇴장청널	헛퇴장청널
여모	癩禿板	여모널	여모널
*	假退癩禿板	헛퇴여모널	헛퇴여모널
벽장문	壁欄門	[벽장문]	벽장문
서까래·서·역목·옥연	椽	[서까래·연]	서까래
부연·며느리서까래·사연	婦椽	[부연]	부연
장연·들연·아연	長椽	[장연]	장연·장여
선자연·선자서까래	扇子椽	[선자연]	선자연
단연·단여	短椽	[단연]	단연·단여
*	上短椽	[상단연]	상단연
방연·네모서까래	方椽	[방연·모서까래]	방연
*	長方椽	[장방연]	장방연
*	短方椽	[단방연]	단모서까래
박공	朴工	[박공]	박공
*	月乃朴工	[달너박공]	달래박공
솔대·솔대목	松竹	[솔대]	솔대
*	斜木	[사목]	사목

모끼연·목계	木只	[모끼]	모끼
평교대·평교대	平交臺	[평교대]	평교대
초평교대·초막이	初平交臺	[초평교대]	초평교대
*	再平交臺	[재평교대]	재평교대
*	初再平交臺	[초·재평교대]	초·재평교대
신방	信防	[신방]	신방
*	柱信防	[기둥신방]	기둥신방
*	文乃木	[문나무]	문나무
*	宗心	[종심]	종심
*	宗心木	[종심목]	종심목
*	春舌宗心木	[춘혀종심목]	추녀종심목
*	中宗心木	[중종심목]	중종심목
중방	中防	[등방 > 중방]	중방
인중방	引中防	[인등방]	인중방
인방	引防	[인방]	인방
*	畫弓防	[화인방]	화인방
장선	長散伊	[장산이]	장산이
귀틀	耳機	[귀틀]	귀틀
장귀틀	長耳機	[장귀틀]	장귀틀
머름	遠音	[머름]	머름
*	遠音竹	[머름대]	머름대
머름동자	遠音童子	[머름동지]	모름동자
머름청판	遠音廳板	[머름청널]	머름청널
반자	班子	[반자]	반자
소란	班子小欄	[반자소란]	반자소란
다라니	班子大欄	[반자다란]	반자다란
*	班子廳板	[반자청널]	반자청널
분합	分閣	[분합]	분합
*	細滿箭廳板分閣	[세살청널분합]	세살청널분합
*	細滿箭短分閣	[세만살단분합]	세만살분합
*	滿箭廳板分閣	[만살청널분합]	만살청널분합
*	滿箭短分閣	[만살단분합]	만살단분합
*	細滿箭廳板分閣	[세만살청널분합]	세만살청널분합
*	細滿箭短分閣	[세만살단분합]	세만살단분합

<참고문헌>

1. 강봉진, 「한국 건축의 이두식 술어에 대한 소고」, 건축사 제4권 15호, 1969.
2.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1999.
3. 김도경, 조선시대 영조의계의 공포용어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4. 김도경, 주남철, 營造儀軌를 통한 栱包部材用語에 관한 研究,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0권 7호, 1994.

5. 김도경·주남철, 『華城城役儀軌』를 통한 栱包部材의 用語에 관한 研究,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0권 1호, 1994.
6. 김동욱 외 3인, 조선시대 건축용어 연구-조선 후기 영건의궤서에 기록된 부재명칭의 변천에 대하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6권 3호, 1990.
7. 김동욱, 17세기 營造儀軌書에 기록된 建築用語-朝鮮時代 建築用語 研究(其一), 대한건축학회학술발표논문집, 제8권 제1호, 1988.
8. 김동욱, 17세기 조선시대 건축용어, 국토와 건설 46호, 1988.
9. 김동욱, 朝鮮後期 多包式 栱包部材 名稱에 대한 比較考察-朝鮮時代 建築用語 研究(其二), 대한건축학회학술발표논문집, 제9권 제1호, 1989.
10. 김동욱, 의궤를 통한 조선시대 건축 연구의 가능성, 건축역사연구 제14권 1호, 2005.
11. 김연주, 『西闕營建都監儀軌』의 차자표기 해독, 한국말글학 17집, 2000.
12. 김연주, 營造儀軌의 차자표기 해독 - 복수 표기를 중심으로, 한국말글학 제18집, 2001.
13. 김연주(ㄱ), 營造儀軌의 工匠道具 표기 연구, 언어과학연구 20집, 언어과학회, 2002.
14. 김연주(ㄴ), 營造儀軌의 容器名 표기 해독, 민족문화논총 25집, 영남대민족문화연구소, 2002.
15. 김연주(ㄷ), 營造儀軌의 部材名 해독, 한국말글학 19집, 2002.
16. 김연주, 영건의궤(營建儀軌)류의 차자표기 어휘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17. 김왕직, 그림으로 보는 한국 건축 용어, 도서출판 발언, 2000.
18. 김왕직, 의궤의 건축용어는 용어통일의 기준이 될 수 있는가, 건축역사연구 제14권 1호, 2005.
19.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國譯 西闕營建都監儀軌, 2003.
20. 손희하, 새김 어휘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
21. 신영훈,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한옥, (주)현암사, 2000.
22. 심대섭, 주남철, 仁政殿 儀軌에 기록된 栱包用語에 관한 研究,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6집, 1989.
23. 오창명, 物名의 차자표기 연구(1) - 園幸乙卯整理儀軌를 중심으로, 영주어문 3집, 영주어문학회, 2001.
24. 오창명, 인정전악기조성청의궤의 차자표기 연구, 영주어문 제6집, 영주어문학회, 2003.
25. 오창명, 손희하, 『西闕營建都監儀軌』 翻譯과 차자표기 解讀 오류에 대하여 - 건축 관련 어휘를 중심으로, 호남문화연구 제36호, 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소, 2005.
26. 이권영, 조선 후기 營建儀軌에 기록된 건축연장의 다양성에 관한 연구-官給 건축연장의 종류와 용도, 건축역사연구 제14권 1호, 2005.
27. 이왕기, 임승호, 문화재 보수공사에 사용된 건축도구와 전통 건축기술의 보존, 건축역사연구 제14권 1호, 2005.
28. 장기인, 韓國建築辭典, 보성문화사, 1985.
29. 장기인, 新編 韓國建築辭典, 보성문화사, 1998.
30. 최미애, 조선시대 후기 영건의궤를 통한 궁궐창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31. 황금연, 華城城役儀軌의 차자표기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32. 황금연, 「儀軌」類의 漢字 借名 表記 研究,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33. 황금연, 의궤의 어휘 표기 형태와 해석 1: 연장명을 중심으로, 韓國言語文學 43집, 1999.

# Architectural Vocabulary Study of SeoGwolYeongGeonDoGamUiGwe (西闕營建都監儀軌) (1)

- It is an attaching importance to with a timber transcriptions  
of Korean -

Oh, Chang-Myong

(Research Professor, Chonnam National University)

Son, Hui-Ha

(Professor, Korean Literatur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Cheon, Deuk-Youm

(Professor, School of Architectur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This study is an investigation that explication of the reading method of transcription marking, and explains what it means and where to use transcription marking of architectural vocabulary. focusing on timber class vocabulary from on SeoGwolYeongGeonDoGamUiGwe(『西闕營建都監儀軌(1831)』).

This study is reviewed sequentially classifying items according to timber class, stone class, iron class architectural vocabulary. This treatise, named 'Architectural Vocabulary Study (1)', is mainly focused on making out a transcription marking of timber class vocabulary on the documents. But, because of the properties of the UiGwe(儀軌), there are some different expressions used for the same vocabulary. Therefore, the different expressions are referenced according to vocabulary used from the 17th century to the 20c century.

This study lists timber class architectural vocabulary of transcription marking on SeoGwolYeongGeonDoGamUiGwe(『西闕營建都監儀軌(1831)』). This study also explicates and explains the meaning of them. In advance, this study compares them with the vocabulary of national language in the middle ages and modern times.

If we could explicate the transcription marking of the documents as it is, we can't only recover plenty of vocabulary related with characteristic architecture in the age of later Chosun Dynasty, but also correct wrongly used vocabulary nowadays. With the results, we can standardize and adjust vocabulary use of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In advance, we can correct errors of spelling and mistaken explanation in the Korean Encyclopedia.

---

주제어 : SeoGwolYeongGeonDoGamUiGwe(西闕營建都監儀軌), Transcriptions of Korean, Architectural Vocabulary, A Timber Transcriptions of Korean

---